

절기 따라 걷고, 국악 따라 쉬어가는 토요일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프로그램

초록이 짙어지는 입하(立夏)의 계절,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국악 공연과 시민 참여형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9일 오후 회경루와 전통문화관에서 다양한 공연·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토요상설공연·무등퓨리언 in 회경루 민속놀이부터 국악장작무대까지

먼저 회경루 일대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6 무등퓨리언 in 회경루' 3회차 행사 '입하(立夏), 초록으로 물든 장인의 하루'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를 주제로, 전통문화와 계절의 감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는 총장2 문화사업단의 취타대 행렬로 문을 연다. 20여 명의 단원이 대취타 연주와 함께 회경루 잔디마당을 가로지르며 개막을 알리고, 시민도 선착순으로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

회경루 누각에서는 국악동화구연 '이팝나무의 전설'이 진행된다. 입하 무렵 만개하는 이팝나무와 풍년에 얽힌 이야기를 가요금과 장구 연주로 풀어낸 공연으로, 오후 2시30분과 3시30분 두 차례 열린다.

광주시 지정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약기장 이준수 보유자는 수명을 다한 가야금 안쪽을 활용한 '지압봉 만들기'를 진행하며, 필장 안명환 보유자는 광주의 전통 붓인 진다리붓 제작 과정을 바탕으로 캘리그래피용 붓 만들기 체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초록이 자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절기골든벨, 삼행시 백일장, 민속놀이 체험,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회

경루 해설 투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는 다섯 번째 토요상설공연이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국악장작그룹 '비담'이 출연해 국악에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를 더한 공연을 선보인다.

2019년 창단된 비담은 전통 국악 선율에 현대적 리듬을 접목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여 온 단체다.

이날 공연에서는 '천하태평 프로젝트'를 통해 삶의 흐름을 국악으로 풀어낸다. '일출'로 시작해 삶의 실패와 에너지를 전하고, 사랑과 이별, 인생의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마지막 곡 '천하태평가'에서는 "우리 삶은 지금도 잘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는 전통놀이 체험과 농악공연·타악 체험, 한복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과 공연 관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다회용 타일이 제공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체험은 사전 신청 및 추첨제로 진행되며, 현장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무교해 비구(초구), 대거이재 무구(구이), 공용형우천자(구삼)”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58장〉 14. 화천대유(火天大有) 中

대유괘 초구의 효사는 '무교해 비구, 간축무구(无交害 匪咎, 艱則无咎)이다. 즉 '해로운 자와 사귀지 않으면 허물이 없고, 많이 가진 것을 어렵게 여기면 역시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초구는 양위에 양효로 양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나 화괘의 최하위에 있다. 음비(應比)의 효가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교섭하고자 하는 자가 없고 교섭으로 인해 해(害)도 없다. 오직 초구는 양강의 자신의 실력으로부터 정도를 걸어간다.



초구는 가진 것은 많으나 초구는 시작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신용을 얻을 수 없고 뒷사람들과 교체할 수 없으며, 가진 것이 많아 소인들의 유혹이 있어 어려운 시기이다. 이렇듯 초구는 미약하나 가진 것이 많아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효사에서 '허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유하기 때문에 대유의 부(富)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도 않아 잘못을 범하지도 않는다.

이들 효사에서 '비구(匪咎)라 말했고 초구는 비효(此文)도 응효(應文)도 없어 남에게 배풀 일도 없고 스스로 쓸 일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물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범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초구는 군위 오효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양들이 막고 있어 어렵다. 음양을 바귀 비복방통괘(飛伏旁通卦, 陰陽顛倒)를 보면 수지미 초효로 오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뢰와 정성을 기울여야 하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상위의 사람들과 교체할 수 없고 신용도 얻을 수도 없으며 소인들로 인해 미혹(迷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므로 참고 이겨내야 한다.

점사에서 득래해 대유괘의 초효(※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마땅히 기미를 보아 옹위하고 자리나 녹을 탐냄은 불기하다(宜見機勇退 不可貪位貪祿/의견기용퇴 불기탐위탐록), 선비는 진취에 처함은 불기하다 그렇게 하면 재앙을 초래한다(不可處進 以招摧擢/불가처진 이초취역), 서속은 심사가 걱정과 번뇌스러우며 소인이 어른을 속이고 능멸해 재성이 있으니(則心緒鬱煩 小人欺凌上而有災眚/죽심서우번 소인기능장 상이유재성/煩 괴로워할 번, 凌 摧 擢, 능기할 롱), 어렵고 위태함을 스스로 지켜야 거의 기울어지는 위태함을 면한다(艱危自持 庶免傾危/간위자지 서면경위)를 얻으면, 마음이 동요돼 다른 데에서 유혹을 받아 넘어갈 우려가 있다. 마음이 유혹 받기 쉬운 때이니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내부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대과(大過)는 없고 적극적인 진취나 반항적인 태도를 삼가야 한다. 평소 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요(動搖)가 있으니 큰일을 바라지 말고 토대를 열심히 쌓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때이다.

따라서 사업 등은 기초가 견실하지 못하니 폐임에 속아 혼자 떠맡으면 안되고 지망도 일확천금의 몽상적인 것이어서 통달할 수 없다. 취업은 아직 어렵고 전업도 보류해야 한다.

혼인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으니 신중함이 필요하고 서두르려면 깨진다. 임신(臨產)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나 모태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기다리는 사람

이나 가솔인은 소식이 있고 분실물은 집안에 커다란 물건 밑에 숨겨져 있다(變卦 艮卦內 乾天). 병은 열병, 설사, 감기가 심화된 폐병 등 고열이 문제이고 병세의 대변전이 있으므로 다른 의사의 진찰이 오히려 길(吉)이 될 수 있다.

'모인의 장래 운세 여하'를 입서해 대유괘 초구를 얻은 '실점'에서 점고하기를 '대유괘는 큰 것을 가진 때이고 자산(資産)이 풍부한 상이다. 그러나 이제 초효를 얻었으니 초효는 시작으로 음비(應比)의 효가 없어 아직은 세상 사람들의 신용을 얻지 못했고 상위 계층의 사람들과 교체할 수 없으며 소인들로 인해 미혹(迷惑)에 빠져 있다. 이러한 불행의 시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无交害) 교만과 사치를 버리며 투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지덕(知德)을 기르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입신하는 날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대유괘 구이의 효사는 '대거이재, 유유왕 무구(大車以載, 有攸往 无咎)이다. 즉, '큰 수레에 많은 짐을 싣고 나아가는 바가 있으니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이효는 음위에 양효로 양강하고 중을 얻어 재주가 뛰어나다. 더욱이 육오의 군주와 상응하여 대임을 맡고 있는 상이다. 바로 큰 수레에 엄청난 무게 많은 무거운 짐을 싣어 운반하는 상이다. 화물을 이효인 수레의 한가운데에 싣었나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해 이를 상전(象傳)에서는 '중적(中積)이라 한다.

구이는 육오의 응효로 군위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싣어도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 즉 구이는 강중부정(剛中不正)의 효이나 중(中)을 얻고 있어 인군(仁君)은 신하의 재주와 실력을 믿기 때문에 구이의 정위가 아님을 나무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큰 수레로 가득 싣어 나르는 것은 한 가운데 바르게 싣으니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거이재 적중불패(大車以載 積中不敗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재물이 생기고 크게 소유하기 위한 시작이니 큰일을 빨리 쉽게 이루기보다는 천천히 이뤄가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점사에서 서족을 들어 대유괘 구이(※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이를 만나면 한관은 전령으로 뽑혀 부르는 명령을 받고 크게 절함이 있으며(聞官驛車 選召有大餘拜/한관역거선소유대제/견 부를 소), 용장은 출사해 전승의 공을 취한다(勇將出師 戰勝攻取/용장출사 전승공취), 선비는 진취에 성명한다(進取成名/진취성명), 서속은 영모에 두텁게 쌓아 재물과 곡식이 풍유하다(德護厚載 財穀豐裕/영모후재 재곡풍유), 혹은 이르되 차랑구입의 정조가 있고 노자는 수가 불리하다(駭車之兆 不利老高/양차지조 불리노수/駭 기습결이 영)를 얻으면,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기는 상당히 운이 좋은 때다. 지위가 상승하고 큰 일이 성사되며 상리(商利)가 좋아 집안이 부유해지거나 세인(世人)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출사(出仕)할 시기이다.

사업과 지망하는 일은 통달의 기운이 있고 취업은 이뤄진다.

전업은 조그만 참고 견디면 뒷사람의 추천으로 길이 열린다. 다만 벼개가 두 개의 해가 떠있는 이위화(離爲火)의 상이니 문서, 계약 등 중서에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혼인은 신분이 좋은 사람(六五)으로부터 낙점을 받아 성사되고 임태는 생생아(重火難)로서 조금 빨리 태어날 수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서둘러 오고, 가솔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멀

리 가버렸으나 행선지는 판명되며, 분실물은 건천(乾天)의 물상으로 보아 둥근 원탁 등에 쌓여 있어 있어 버렸다. 병은 다리, 안질, 심한 열, 정신혼란으로 중태이고 육충괘가 돼 위험하다.

대거이재(大車以載)의 효사의 뜻과 변 증괘가 돼 장의차에 실려 나가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 관리의 운기 여하'를 입서해 구이를 얻고 점고하기를 '이 관리는 구이에 해당하고 육오의 명주(明主)인 임금과 응양상응하는 상이므로 천하의 대임(大任)을 맡아 대업을 보좌할 수 있는 큰 그릇이다. 마치 자신이 맡은 중임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고 튼튼한 대형차에 무거운 물건을 가득 싣고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大車以載 有攸往 无咎). 장래 요직에서 중임을 맡고 큰 공을 세우는 큰 인물이 된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대유괘 구삼의 효사는 '공용형우천자, 소인불극(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이다. 즉, '제후, 공들이 천자에게 조공과 충성을 바치고 천자로부터 잔치에 초대돼 대접받고 영토를 하사받아 형통함을 얻는다. 소인은 탐욕과 의심이 많아 바치지 못한 다'는 의미이다.



삼효는 양위에 양효로 정을 얻고 있어 강건하면서도 올곧은 삼공대부(三公大夫)이다. 위로는 육오의 유운 지존의 인군이 있다. 왕공은 대유의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인 만큼 인군에게 제사의 공물을 바친다.

인군은 이로써 신계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써 제물을 바친 왕공들에게 향연을 베푼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이러한 제물을 바칠 줄 모르는 이기적 인물이기 때문에 향연에 초대받지 못한다.

즉, 구삼은 내과의 지방 제후로서 천자로부터 잔치에 초청 받아 조공과 충성을 바치고, 대신 대접받고 폐백과 영토를 하사받아 형통하게 된다. 만일 구삼이 탐욕의 소인이라면 '육오가 베푸는 잔치를 의심해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을 도모하는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효사의 '공용형우천자(公用亨于天子)'의 의미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우며 제후가 세금을 거두 천자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인이라면 탐욕과 의심이 많아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해 천자로부터 명이나 지위를 얻지 못한다. 소인의 경우를 상전(象傳)에서는 '소인해야(小人害也)라 해 소인에게는 해가 된다고 말한다.

구삼이 변하면 화택구(火澤睽)가 돼 남과 불화 분쟁이 발생하고 자신의 권세를 넓히기 위해 병력을 비축해 싸우려 하나 이기지 못하니 이를 경계하기 위해 소인은 '이기지 못한 다'고 해서 '소인불극(小人弗克)이라 했다. 극(克)은 능(能)의 의미와 같다. 불극(弗克), 불극(不克)은 불능(不能)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는 크게 소유하는 때이나 사람을 함부로 쓰거나 믿지 말고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주위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뒷사람의 결정을 기다리는 때로 마음이 불안하다. 소인을 조심해야 한다.

점사에서 득래해 대유괘 구삼(※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삼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반드시 조정의 중임을 이겨 낸다(必勝朝廷之重任/필승조정중임), 선비는 반드시 크게 장원을 짓는다(必作大闢/필작대과).

서속은 반드시 재난을 불러서 어렵게 채우고 어렵게 막으며, 소인배가 속이고 업신여긴다(必招災難 晦澁難塞 少輩欺涉/필초재난 회색간색 소배기름), 흉한 죽 구로 변하면 형상을 면기 어렵다(凶則難免 刑傷難免/흉죽변구 형상면면)을 얻으면 운기 등은 상당히 성대하고 자신의 가문을 운택하게 하거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의 시기다. 또한 공익을 위해 돈을 써야 하고 이러한 기회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접근하는 사람도 많은 때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구두쇠로 재물을 쌓아 두기만 하고 쓸 줄 몰라 사람들로 부터 원한이나 시기를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삼의 시기는 비우고 해탈하는 때로서 공익과 선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후에 길(吉)을 얻는다.

사업, 거래 등에서는 자력(資力)이 풍부해 상당히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 아까와 하면 재물도 지키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다툼이 발생하니 통 큰 배정으로 베풀어야 한다.

취업과 전업은 자부심이 강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 혼인도 자존심이 강하고 이상이 높아 성사되지 않고, 임태는 제제를 지키지 못해 고통이 따른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가솔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 돌아올 기미가 없으며 분실물은 망실되고 찾기 힘들다. 병은 폐, 호흡곤란, 담해, 허리통증 등 색정이 원인일 수 있고 약효가 없으며 어려운 상태다.

'모인의 운세 여하'를 입서해 구삼을 얻은 '실점'에서 '대유괘는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으로 이 사람은 부호(富豪)로 주군(主君)의 신임이 두텁다. 이를 공용형우천자(公用亨于天子)라 했다. 그러나 군위로부터 받는 이러한 총애(寵愛)를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며 아랫사람을 멸시(蔑視)할 경우는 소인이 돼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를 소인불극(小人弗克)이라 한다.

대유는 비우고 해탈(解脫)할 경우에는 대인이 돼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소인이 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대유는 곧 비움이요 해탈이다.

진(秦)의 제후인 목공(穆公)이 천자 양왕(襄王)의 동생 대(帶)의 반란으로 피난가자, 피난간 천자를 환도(還都)시키고자 '환도 성괘 여하'를 문점해 '대유지구(大有之賤 三動)'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대유괘 구삼은 '공이 천자에게 조공과 충성을 바치고 잔치에 초대돼 영토를 하사 받는' 자리이다. 이는 목공이 대의 반란을 진압하고 천자로부터 대접받고 영토를 하사받는다는 의미다.

이를 폐상의 변화로 살펴보면 상괘 이화는 태양으로 천자, 화괘 건천은 삼공(三公)이다. 건천이 변해 기쁨의 태택으로 변한 것은 반란이 진압돼 천자가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 주는 것이고, 상괘 이화의 태양빛이 태택의 연못의 물에 반사돼 빛나니 이는 천자의 마음을 아래로 해 공을 맞아들이는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춘추좌전(春秋左傳)해석'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기양성

